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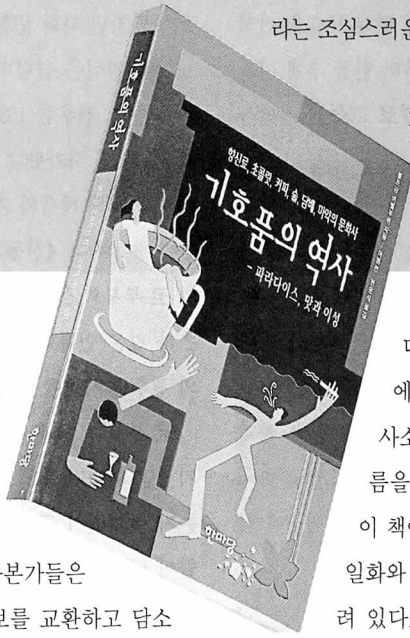
인공적 파라다이스에 가려진 자본의 음모

볼프강 슈벨부쉬의 《기호품의 역사》를 읽고

이희재 | 번역가

향신료 무역에 관한 후일담으로 시작하는 이 책은 커피·술·담배·초콜릿 등의 기호품이 서구에 수용되는 양상을 집요하게 파헤쳤다. 특히, 기호품이 처음에는 충격적 효과를 발휘하지만, 차차 일상품이 되는 과정을 추적해 그 사회문화사적 의미를 읽어내는 지은이의 안목이 돋보인다.

이병련 외 옮김
한마당/A5/264면/9000원



기호품에 얽힌 일화 풍성해

슈벨부쉬의 책은 단순한 잡학사전과는 달리 하나의 기호품이 사회 속에서 수용되는 양상을 집요하게 따진다. 《철도 여행의 역사》(공리)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됐지만 사소한 현상에서 사회 전체의 흐름을 읽어내는 안목이 돋보인다. 이 책에는 기호품에 얽힌 흥미로운 일화와 볼 만한 그림도 풍부하게 실려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필자의

후추를 중심으로 한 향신료 무역이 신대륙 발견의 원동력이 됐다는 얘기는 서양사 관련서에서 자주 접하는 내용이다. 슈벨부쉬의 《기호품의 역사》(이병련 외, 한마당)는 그 후일담이다. 그는 후추의 행적을 자세히 들려준다. 후추는 누가 애용했는가? 후추는 어떻게 먹었는가? 후추는 어떤 사회적 상징성을 얻게 됐는가?

신분과 지위를 상징하는 값비싼 동방의 후추를 자기과시적으로 뿌려대던 유럽의 지배계급은 육상 무역로가 아랍 세력에 의해 끊기자 후추의 본고장 인도와의 해상 무역로 개척에 나서 신대륙을 발견한다. 신대륙은 담배라는 연기 나는 요상한 기호품을 유럽인에게 안겨줬다. 담배는 이미 중세 후기부터 아랍을 통해 들어온 커피와 함께 새롭게 부상하던 부르주아 세력의 기호품으로 빠르게 자리잡았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다.

기호품의 계급적 상징성

커피와 담배는 술과 대조적이다. 술은 사람의 의식을 흐리멍덩하게 만들지만 커피와 담배는 의식을 각성시킨다. 이성적이고 건조한 기호품이다. 알코올이 압도적인 기호품으로 자리잡고 있던 세계에서 부르주아는 커피와 담배에서 활로를 찾았다. 육체노동자에게는 술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고상한 정신노동자에게는 커피와 담배가 필요하다고 그들은 주장했다.

커피와 담배는 처음에는 커피하우스라는 공공 장소에서 애용됐다. 자본가들은 커피하우스에서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담소를 나눴다. 굴지의 로이드 보험회사도 바로 이런 허름한 커피하우스에서 시작됐다. 커피하우스는 금녀의 집이었다. 자연히 커피와 담배도 남성의 전유물이었다.

산업혁명의 발전은 브랜드라는 새로운 기호품을 탄생시킨다. 전통적으로 유럽의 노동자들은 맥주와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나 속도를 중시하는 산업사회는 농경사회와는 달리 빠르게 취할 수 있는 값싼 독주를 요구했다. 공장 노동에 지친 노동자들의 유일한 낙은 허름한 술집에서 싸구려 브랜드를 마시는 것이었다. 브랜드는 맥주보다 10배나 독한 술이다. 커피가 부르주아를 상징하는 기호품이라면 브랜드는 프롤레타리아를 상징하는 기호품으로 뿌리내렸다.

18세기 중엽 영국에서는 차가 커피를 몰아낸다. 동인도회사가 차를 중국에서 독점 수입해 대량으로 보급한 것이다. 처음에는 현금을 주고 샀지만 중국이 허약해지자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으로 결제했다. 약과 피로회복제로 쓰이던 마약은 영국의 무차별 살포로 중국사회를 케멸시켰다. 유럽 각국은 마약의 공포를 실감하고 자국 내에서는 약물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기호품은 처음에는 충격적 효과를 발휘하지만 점차 사회에 길들여 일상용품으로 자리잡는다. 커피가 그랬고 담배가 그랬다. 슈벨부쉬는 마리아나 같은 순한 마약도 머지않아 합법화될 거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는다.

가슴을 친 대목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영국이 무력을 앞세워 중국에 아편을 강매했다고 하는, 이 책의 주제와는 거리가 멀 수도 있는 역사적 사실이었다. 차라고 하는 자신의 기호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타국민에게 아편이라는 자기파멸적 기호를 강요한 강대국의 야만은 지나간 역사의 유물인가?

강자는 변하지 않는다. 약자에게만 변화를 강요한다. 에티켓도, 인권도 모르느냐고 으름장을 놓는다. 약자의 텍스트에는 별로 관심도 없지만 어쩌다 관심을 갖고 번역을 해도 문학작품마저 자기 기호대로 윤색하고 침착한다. 반면, 약자는 강자의 텍스트를 《성서》처럼 떠받든다. 주눅이 들어 있다. 어느새 자신의 기호도 잊어버리고 강자의 기호를 내면화한다.

원문에 충실하려는 우직함은 높이 사고 싶지만 그 점에서 이 책의 번역은 조금 아쉬움을 남긴다. 강자가 약자의 텍스트를 유린하는 만큼 약자도 강자의 텍스트를 장악해야 한다. 약자의 기호대로 정리해야 한다. 명사는 동사로, 형용사는 부사로 과감히 고쳐야 한다. 다른 이유는 없다. 공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